

히브리서 11:13-16 나그네들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땅에서 모아두었던 것들은 아무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 너무 매달리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나그네들입니다.

토머스 테일러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8 세 때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23 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허약해서, 불과 6 개월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처절한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힘든 투병생활 3 년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며칠 전에 한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하늘 나라에 갔지만, 그가 지은 찬송시는 수 백 년 동안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서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79 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쉬일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단지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저 하늘나라야말로 내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나의 순례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추운 겨울 바람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저 하늘 나라야말로 내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나그네 길을 마치고 영원한 고향에 가면, 주님을 항상 뵈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는 괴로움과 답답할 때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 찬송 역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위로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아갈 하늘 본향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참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산너머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비록 찬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본문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는 히브리서에 주신 말씀을 한 구절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 심령에 채워봅시다.

다같이 13 절을 같이 읽습니다

1)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아야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절실히 깨닫고 살아야 만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며 살게 만듭니다. 이 땅을 떠날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땅의 것들에 얽매이고 땅의 것들에 짓눌려서 평생 동안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가 이 땅의 주인처럼 살려고 하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뿐만 아닙니다. 히 11 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나그네였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모두 다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열거한 믿음의 족장들의 귀한 믿음의 삶을 열거한 후에, 1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나, 믿음으로 승천한 에녹이나,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나, 믿음이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나, 모두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분들은 한 번 굳게 결단한 믿음을 죽기까지 계속 지켜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믿음의 삶이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삶입니다. 다른 것들이 진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믿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그럴듯해보여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할지언정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산 꼭대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은 이분들이지만, 성경은 이 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지 못했다니, 무슨 뜻인가요?

이 땅에서 아직 받지 못한 약속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더 크고 귀한 약속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분들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약속대로 아주 귀한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귀한 약속만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땅에서 살 동안에는 아직 받지 못했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기에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기까지했던 이 분들이, 아직 받지 못한 가장 큰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13 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의 인생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다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진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만이, 넓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큰 미련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하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어차피 놓고 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속상하는 것들이 있다하더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땅에서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 2:15)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나그네임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현장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나그네는 이 땅에서 모은 것들,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 많은 욕심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1)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왜 나그네 인생 길이 힘들고 괴로운 줄 아십니까. 나그네 길에 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그 여행 길이 괴롭고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나그네가 미련이 많으면 발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이 세상에 대한 자랑과 미련과 욕심을 떨쳐버리는 훈련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환영 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땅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할 것이 없습니다. 이곳은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일 뿐입니다. 이곳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다같이 14 절과 16 절을 읽습니다.

2) 나그네로서 찾고 있는 천국 고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힌 요한 클레퍼씨가 온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죽어야 할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이러한 찬송시를 수용소 벽에 새겨 놓았습니다.

“밤은 벌써 많이 지나갔고, 아침은 온다. 그대여 저 새벽을 바라보며 함께 찬송하자.”

괴로운 인생 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소망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 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이분들이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구절을 “그들이 찾고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분들이 나그네로 살면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한 믿음이 그때 생깁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늘 시험이 옵니다. 동요가 일어납니다. 욕심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란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폭풍 속에서도 평화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행을 해 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누구에게나 여행을 할 때는 두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떠날 때의 기쁨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면 불편함과 고생을 느낍니다. 사실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설레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떠나갈 때도 즐겁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보다 더 즐겁습니다. 나를 맞이해줄 사람들과 집이 있기에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큼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살려면, 내 생애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게될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큰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임을 모르고 천국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살면, 큰 축복을 받아도, 작은 기쁨 밖에 얻지 못합니다.

대서양 바다 한 가운데서 무서운 비바람과 폭풍에 시달리던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교사 존 웨슬레는, 겁에 질려서 갑판 뒤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선교활동을 했으나,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낙심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던 도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충성도 못하고 여기서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을 때, 배 밑창에서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 밑창에는 싸구려 객실이 있었습니다.

“오, 우리는 가네. 이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빨리가네. 주께서 주시는 평화의 마음을 품은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네. 그곳에는 참 평화가 있네. 그곳에는 참 기쁨이 있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웨슬레는 급히 배 밑창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모라비안 교도 다섯 사람이 앉아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걸로 생활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기쁜 얼굴로 찬송하는 모습을 본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와 똑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폭풍우를 만나서 사색이 되고, 저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그것은 단 한가지 차이 때문이었음을 웨슬레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이 땅의 나그네임을 절실히 깨닫고, 돌아갈 본향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는데, 웨슬레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흔들립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주님 앞에 서는 목적,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고해도, 아버지 집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왜 우리에게는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 얽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쓸데없는 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사람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 많이 가졌기에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저는 재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품고서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얼마전에 미국의 작은 시골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마련한 후, 교회가 조금 소란하다고해서 그 교회를 떠나시는 친구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자기는 예배당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할 일을 다했기에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에게는 예배당 건물 마련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당은

말씀이 흥왕하고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목적이 되면, 예배당 건물이 비전이 되면, 예배당 건물을 짓고난 후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서로 소란을 일으키는 일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좋은 예배당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 건물이 결코 주님의 비전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일뿐입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까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이 세인트루이스에서부터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 한국 교민들이건, 흑인들이건, 백인들이건, 아시아인들이건, 모두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왜 이런 비전을 품어야 하는가?” 라고 물으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땃겠습니다.

우리는 이땅의 나그네임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잃어버린 것들이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땅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땅에서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자량과 욕심과 미련을 언제든지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반가이 맞아줄 아버지 집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천국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본향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서, 세상에 얽매이거나 짓눌려 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